

경기 도 야생동물

보호가 필요한 생물들을 지켜주세요!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
지역에서 보호 야생동물을
포획·채취·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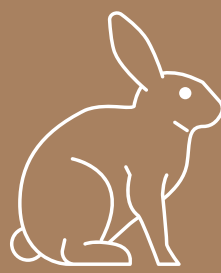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0경기도콜센터
031-120
기후환경정책과
031-8008-3513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포유류 4종



고슴도치

몸이 짧고 통통하며, 몸의 색깔은 암갈색임
야행성이며, 온 몸을 덮고 있는 바늘가시로 자기 몸 보호, 잡식성으로 곤충, 지렁이, 들쥐, 잡초의 뿌리, 여러 가지 과실 등을 먹음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땃쥐

주둥이는 뾰족하게 길고 꼬리 굵고 짧으며, 머리와 등면은 암갈색, 배면은 담회색임
야간에 활동하며, 곤충류, 거미류, 지렁이 등 무척추동물을 잡아먹음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멧토끼

몸통의 길이는 42~49cm 정도, 꼬리의 길이는 5~11cm임, 털색은 일반적으로 회색을 띠며 허리와 꼬리는 담회갈색임
전국의 아산에 서식함. 집토끼와 달리 굴을 파지 않으며 덩불, 나무 밑 등을 은신처로 이용하여 주로 아침과 저녁에 활동함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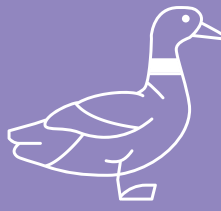
집박쥐

몸통은 36~48mm, 날개는 32~36mm이며, 몸빛은 상면이 암갈색에 털끝은 담황갈색, 하면은 회갈색임
인간 근처 처마 밑 등에 서식하며, 11월경에 겨울잠에 들어가 이듬해 3월에 활동. 하천이나 개울가에서 해질녘 30분 전후에 움직임



사진출처:국립생태원(www.nie.re.kr)

조류 11종



노랑때까치

암컷과 수컷 모두 이마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회색빛을 띄고, 암수가 함께 생활하며 번식이 끝난 후 가족군 형성함
농촌의 경작지나 울창하지 않은 숲, 교외, 경작지나 소림지역 등에 찾아옴



사진출처:국립중앙과학관(www.science.go.kr)

들꿩

몸길이는 36cm임, 몸 전체가 얼룩무늬가 있는 갈색을 띠며 대체로 암수가 비슷하나 수컷은 턱밑에서 먹까지 검은색 반점이 있음
숲속 넓어진 나무 밑 관목 뿌리 아래의 땅 위에 번식하고 땅 위에서 걸다니며 먹이를 찾음



사진출처:국립중앙과학관(www.science.go.kr)

물까마귀

몸길이는 22cm로, 암수의 깃털 색은 거의 비슷함. 눈꺼풀에 흰색의 가는 털이 섞여 있으나 그 이외의 안쪽 면과 아랫면은 모두 어두운 갈색임
계류의 물가, 흐르는 물속의 돌 사이, 얕은 계류의 물속에 잠수하면서 먹이를 찾고, 단독 또는 암수가 생활함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밀화부리

활엽혼효림이 있는 저지대 숲, 수변과 습지, 경작지 등에 드물게 분포함
수컷의 머리와 뺨은 광택이 있는 검은색 이며, 목 뒤와 등은 회갈색이고 날개는 광택이 있는 검은색임



사진출처:국립중앙과학관(www.science.go.kr)

속독새

몸 길이는 27~32cm로 머리와 눈이 비교적 크며, 날 때는 긴 날개와 긴 꼬리가 특징적임. 암컷과 수컷 모두 몸 전체가 갈색, 검은색, 회색이 섞여있음
야행성으로 낙엽활엽수나 침엽수 또는 혼효림 등의 산림과 관목이 산재하는 풀숲에서 생활함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종다리

습지, 초지, 경작지에 비교적 많이 분포함
몸은 엷은 황갈색이고, 머리, 등, 작은 날개 덮깃과 가운데 날개덮깃은 적갈색으로 무늬가 없음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해오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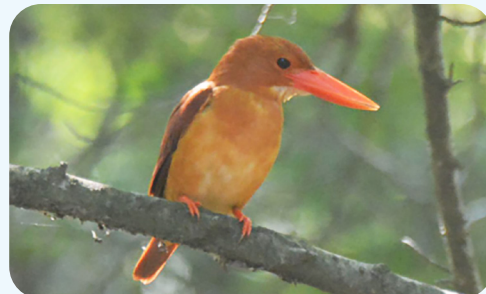
몸길이가 약 57cm로 머리에서 뒷목까지 검은색, 등은 녹색을 띤 검은색임. 목에는 흰색의 장식깃이 2~3개가 늘어져 있음
야행성으로 낮에는 숲이나 물가에서 쉬고, 주로 야간과 아침저녁에 활동이 활발함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호반새

전반적으로 주황색을 띄고, 아랫면은 약간 연하며, 날개는 적갈색임
여름 철새를 숲속이나 숲을 따라 흐르는 계류나 습지에서 물고기, 개구리나 곤충류, 가재 등을 먹음



사진출처:국립중앙과학관(www.science.go.kr)

황오리

몸 전체가 황갈색이며 몸길이는 60cm 내외임
해안 가까운 초지나 습지에 서식하며, 겨울에 자라는 어린 풀, 시금치와 같은 초본류를 좋아함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후투티

몸길이는 28cm 정도이며 수컷 겨울깃의 이마, 머리꼭대기, 뒷목은 엷은 분홍빛 갈색이며 머리꼭대기의 깃털은 크고 길며 여닫이가 자유스러운 훌륭한 모관을 형성함
한국에서 흔하지 않은 여름새이고 단독 또는 암수가 함께 생활하며 주로 지상에서 생활함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흑꼬리도요

몸길이는 36.5~38.5cm로 다리와 부리가 길며, 부리는 직선으로 끝부분을 제외하고 분홍색임. 날 때 꼬리 끝은 넓은 검은색, 기부는 흰색으로 보여 다른 종과 쉽게 구별됨
얕은 물이 고인 논이나, 강 하구, 갯벌에서 서식하며, 무리를 이루어 먹이를 찾음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양서·파충류 5종



능구렁이

등에 붉은색과 검은 색의 가로 무늬가 있으며, 굵은 흑색 띠 같은 반문이 몸통에는 50~70개, 꼬리에는 18~20개가 있음
야행성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 도로에서 체온을 높이는 행동을 하다가 로드킬되는 경우가 빈번함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도롱뇽

일반적으로 수컷은 등이 흑색이며, 종배설강 상단에 돌기가 있어 등이 갈색이고 흑색소 반점이 있는 암컷과 구별됨
서식지는 주로 논지 주변임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물두꺼비

경기도 북부 고산지대 및 산간계곡에 서식함
등에 피부 용기들이 뚜렷하고 체색도 번식기에 암컷이 비교적 붉은색을 띠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한국산개구리

한국산 산개구리류 중 가장 소형으로 고막 뒤쪽으로 주둥이 끝까지 뚜렷한 흑색 반문이 있음
농지 주변 습지에서 출현하며, 보통 초봄에 물이 고인 농지에 산란함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한국꼬리치레도롱뇽

전체 길이는 130~220mm, 몸무게 7~13g임. 몸은 길지만 가늘고, 꼬리가 전체 길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흐르는 물에서 생활하는 도롱뇽의 대표적인 종으로 번식 기간 이외에도 동굴에서는 수중에서 발견됨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어류 6종



강주걱양태

머리는 위아래로 매우 납작하고 제2 등지느러미 앞쪽까지는 편평하며 그 이후는 원통형임
기수역의 모래바닥에 살면서 다모류와 같은 저서동물을 주로 먹음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금강모치

몸길이는 7~8cm, 몸은 납작하면서 길고 뾰족, 색은 등쪽이 황갈색, 배쪽은 은백색임
물이 맑고 찬계곡, 바닥에 자갈이 많이 깔려 있는 계곡, 산소가 풍부하고 물이 맑은 수계에 서식함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두우쟁이

체장은 20~25cm이며, 체형은 가늘고 길며 등지느러미부터 뒤쪽으로 매우 긴 원통형임
임진강, 한강 일부수역에서 서식함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미유기

몸길이는 15~25cm, 메기보다 몸이 가늘고 길며 등지느러미가 작음
등쪽에서 보면 주둥이 끝이 직선형이고 아래턱이 튀어나와 있음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비둘봉어

농약, 공장, 축산폐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하천개수, 농수로 직선화, 콘크리트 개조 등으로 인해 서식지가 급격히 감소함
체장은 4~7cm이며, 체형은 긴 타원형으로 옆으로 납작함



사진출처:국립중앙과학관(www.scienc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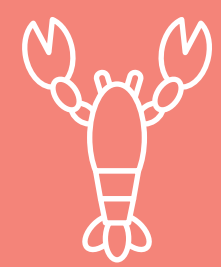
살치

체장은 18~20cm이며, 체형은 아주 길고 옆으로 납작함
유속이 완만한 강하류의 중층이나 표층에서 떼지어 서식하며, 실지렁이와 소형 갑각류를 주로 먹음



사진출처:국립중앙과학관(www.science.go.kr)

무척추류 5종



가재

몸길이가 약 50mm, 새우와 게의 중간형으로 머리, 가슴은 등배 쪽으로 약간 납작한 원기둥 모양이고, 배도 등배 쪽으로 납작함
갑각 윗면은 매끈한 편이나, 양쪽 옆면에는 돌기가 뾰뻑함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늑반딧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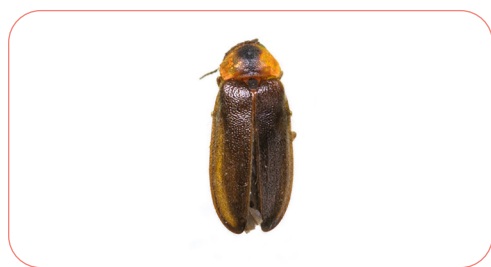
몸길이는 15~18mm이며 머리는 넓은 앞가슴 등판 밑에 숨겨져서 위에서는 보이지 않음
몸의 대부분은 암갈색 내지 흑갈색이며, 배의 뒤쪽에 있는 발광기관은 황백색이고 암컷은 날개가 없음



사진출처:국립중앙과학관(www.science.go.kr)

애반딧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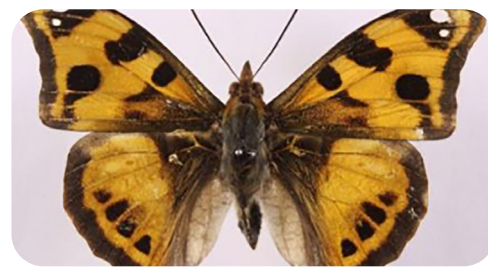
몸길이는 7~10mm임. 몸은 흑색이고, 가슴은 앞쪽으로 약간 좁으며 뒤 모서리 각이 돌출되어 있음
앞가슴등판은 적색을 띠며 중앙에 띠 모양의 흑색 줄이 있음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유리창나비

암날개의 길이가 32~35mm, 앞뒷날개 모두 주황갈색 바탕에 검정무늬가 있으며, 날개 끝에 투명한 막질의 무늬가 있음
경기도에는 보전성이 우수한 산지에 분포하며, 유충은 풍계나무, 팽나무를 먹으며, 번데기로 활동함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파파리반딧불이

몸길이는 8~9mm이며, 앞가슴등판은 주황색이며, 뒷날개에는 검은색이고, 두줄의 줄무늬가 있음
성충은 6~7월에 주변 초원 관목위 위에 있으며 수컷은 야간에 3초 간격으로 발광하여 짝을 찾음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식물 7종



개장향풀

높이 40~80cm로 흰색이 돌며 뿌리 줄기는 목질임
석회질이 풍부한 토양에서 생육하는 식물이며, 염습지 토양 등 염분이 높은 토양에서 생육함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갯방풍

키는 5~20cm이고, 잎은 길이가 10~20cm이며 뿌리에서 발달한 잎은 땅에 올라와서 삼각형으로 퍼진 뿌리를 깊게 내리며, 진한 방향성 정유를 발산함
바닷가 모래밭, 사구지역에서 주로 분포하며, 해안가 절벽에 붙어 생육하기도 함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금강초롱꽃

높이는 30~90cm이고, 뿌리는 갈라지며, 높이는 산지에서 자람
줄기는 곧게 자라며, 잎은 줄의 중간 부분에서 4~6개가 어긋남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끈끈이주걱

높이가 6~30cm, 잎은 뿌리에서 뭉쳐나고 둥근 모양이며 밑 부분이 갑자기 좁아져서 잎자루로 되어 주걱처럼 생겼음
무분별한 산형, 산지 훼손, 개발 등으로 분포지가 감소되는 추세임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변산바람꽃

키는 5~8cm이고, 잎은 5갈래의 둥근 모양을 하고 있으며 갈라지는 것은 새의 날개처럼 갈라짐
이른 봄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피기 시작하는 봄을 알리는 꽃임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삼지구엽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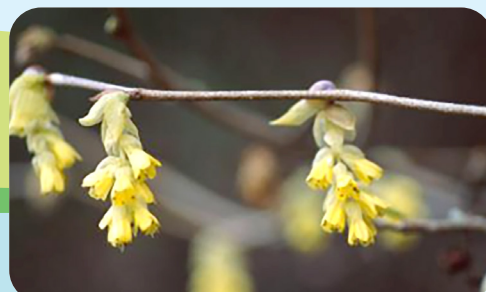
키는 약 30cm이고, 잎은 길이가 5~13cm, 폭은 1~8cm 정도이며 가장자리에 잔 톱니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음
비교적 온도가 낮은 고산지역을 좋아하며, 부엽질이 풍부한 토양에서 잘 자람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히어리

낙엽 떨기나무로 줄기는 높이 3~5m임. 잎은 어긋나며, 난상 원형으로 길이 5~9cm이고, 가장자리에 물결 모양의 뾰족한 톱니가 있음
꽃은 3~4월에 잎보다 먼저 피며, 길이 3~4cm의 총상꽃차례에 8~12개씩 달리고, 노란색임



사진출처: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